

에콰도르, 공공부문 개혁법안 의회 통과

□ 공공부문 개혁법안 의회 통과

- 9월 25일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과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법안이 에콰도르 의회를 통과됨.
- 공공부문 개혁법안의 제정은 구띠에레스 정부가 시행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조치로 평가되며, 최근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문 인건비(2000년 9억 달러 → 2002년 20억 달러)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이 이로 인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한편, 공공부문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는 다수당이며 야당인 중도우파 기독교사회당(PSC)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이루어짐. 이는 의회내 지지기반이 약한 구띠에레스 정부의 향후 개혁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큼.
 - o 금년 7~8월에 구띠에레스 대통령의 애국사회당(PSP)과 인디언 단체(Pachakutik) 및 좌파 인민민주운동당(MPD)과의 연립정부가 분열된 이후 구띠에레스 정부는 의회 의석수가 6석(총 100석)에 불과한 상황이며, 이후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을 추진해왔음.
- 그러나 동 법안 통과로 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고, 기타 개혁조치도 의회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, 향후 IMF 차관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□ IMF 차관지원 중단 가능성 상존

- 금년 1월 출범한 에콰도르 구띠에레스(Lucio Gutierrez)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 재정난 해소와 IMF의 신규차관 도입을 위해 긴축경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.
 - 긴축경제조치의 주요내용은 유류가격 인상, 차량세 신설, 소득세 면세대상 축소, 수입관세 면제 일시 철폐,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 등이었으며, 추후 가정용 가스, 전기, 전화 요금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.
- 구띠에레스 정부가 강력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 의사를 보이고, 예비역 대령 출신의 중도좌파 대통령인 구띠에레스가 또 다른 우고 차베스(베네수엘라 대통령)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3월 24일 IMF는 2억 5백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 지원을 승인하였고, 이미 8천 5백만 달러가 집행되었음.
- 그러나 에콰도르는 IMF의 차관 지원조건 중 상당부분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, 향후 IMF 차관 집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현재 시행기한이 경과한 IMF 차관 이행조건은 다음과 같음.
 - 국영 전력, 통신회사의 경영권 민간 이양 : 당초 8월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불이행
 - 부실은행 청산 : 당초 9월까지 예금보험공사(DGA)가 인수한 8개 부실은행을 청산하기로 합의했으나 불이행
 - 세계개혁 : 재정수지 개선과 재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특정 용도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세계개혁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나 관련 이해집단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

- 석유산업 투자유치 : 산유량 증대를 위해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나,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보상태 지속
- 재정적자 억제목표 : 재정지출 억제 실패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. 한편, 에콰도르 정부는 2003~04년 기초재정수지 흑자규모가 IMF와의 합의수준(각각 1.9%와 2.2%)을 밑도는 GDP의 1.5%에 그칠 것으로 전망.

* 기초재정수지 : 일반예산에서 금융비용 지출전의 수치

□ 단기 전망

- 경제성장세 둔화와 IMF의 차관지원 중단 가능성 등으로 최근 S&P와 Fitch는 동국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(positive)에서 안정적(stable)으로 바꾼 바 있음.
- 달러공용화(dollarization)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, 경상수지 적자지속 등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개혁 지연으로 인한 IMF의 차관지원 중단 가능성 등으로 에콰도르가 또 다시 공공부채 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음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